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 연구*

권혜경

동국대학교 / 교수

이희경†

가톨릭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강점을 인식하는 관점의 발달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숙련상담자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근거이론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담자의 준거 체계 변화가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발달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은 이해 단계, 재구성 단계, 명료화 단계, 통합 단계, 통합 유지 단계의 5단계로 도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과 인간적 성숙의 통합은 강점 인식 발달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은 ‘관점의 확장을 통해 강점의 통합적 의미를 내면화하고 내담자의 주체적인 강점 인식을 조력함’으로 설명되었다. 관점이 확장된 상담자는 문제와 강점을 동시에 인식하며, 맥락과 상황에 따른 강점의 역동성을 이해하였고, 강점의 통합적 의미를 재구성하며, 내담자가 스스로 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임상적 함의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강점, 강점 인식, 강점 인식 발달 과정, 근거이론

* 본 연구는 권혜경(2019)의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이희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Tel: 02-2164-4296, E-mail: ahalee@catholic.ac.kr

상담은 단순한 증상의 감소나 제거가 아닌 내담자의 인간적 성숙과 자아실현을 포함한 긍정적 방향으로 기능하는 데까지 도와야 한다는 지향점을 갖는다. 이에 상담심리학자들은 모든 내담자들의 병리학적 진단, 고통, 또는 장애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내담자 강점을 상담의 주요 가치로 두고 있다(Gelso, Nutt, & Fretz, 2014; Wright & Lopez, 2002). 그러나 그동안 심리학은 주로 인간의 손상된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교정하고 치료하는 데에 치중하여 왔다(Seligman, 2002). 이러한 경향성은 한 개인의 강점보다는 약점과 실패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지만,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못하는 한계성을 갖게 했다(Hurtes, 2001).

이러한 지적과 맞물려 최근 병리적 관점에서 탈피하고, 개인의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개입하려는 긍정심리학적 접근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심리학이 개인의 단점을 수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치중하였다면,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은 개인이 가진 강점과 함께 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식과 체계를 제공하고 한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실제로, 강점은 내담자의 어려움을 다루는데 있어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지만, 역경과 위기에 처한 내담자는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right & Lopez, 2002). 이에 상담자는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내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

자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강점이란 사고와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 특질로 인간의 자기실현과 충만한 삶에 기여하고 그 자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도덕적 가치인 덕목(virtue)과 연결된다(Peterson & Seligman, 2004). 강점이 도덕적으로 가치있는 성격의 적응적인 측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점은 일찍이 주요 상담 이론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서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로 강조되어왔다. 여러 이론들 중에서도, 정신분석(Freud, 1912)은 치료 성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치료 동맹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내담자의 건강한 자아와 협력하여 이끌어나가는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Erikson(1963, 1968, 1982)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단계마다 겪게 되는 도전적 과제가 있으며, 그 과업을 달성한 결과로 생성되는 긍정적인 성격 특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자기실현 성향을 언급한 인간중심상담(Rogers, 1961)은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시켜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실존주의는 인간에게 자기 인식(self-consciousness)이라는 고유한 능력이 있고, 이는 인간의 실존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관점을 갖는다(Sartre, 2013). 이처럼, 상담 이론들은 공통된 견해로 인간의 강점을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상담 연구자들과 실무자들 또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작업임을 인정해 왔다(Scheel, Seaman, Roach, Mullin, & Blackwell-Mahoney, 1999). 상담에서 내담자의 강점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첫째, 개인은 자신이 어떤 강점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는

것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다 (Govindji & Linley, 2007; Rettew & Lopes, 2008;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강점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한다. 즉, 개인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알게 되면서 우울감이 감소하고(Seligman et al., 2005), 안녕감과 활력(Govindji & Linley, 2007) 및 행복 수준(Seligman et al., 2005)이 높아진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그들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강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점 인식은 내담자에게 힘을 실어주어(Aspy & Aspy, 1998; Ohlsen, 1997), 인생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상담자가 내담자 강점을 인식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강점 중심의 접근이 상담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Bernard, 1991; Chazin, Kaplan, & Terio, 2000; Conyne, 2004; Kaczmarek, 2005). 상담은 개인의 강점과 자산을 강조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다(Gelso & Woodhouse, 2003).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이해해야 하고, 내담자의 약점을 보완하는 일 뿐만 아니라 강점을 구축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듯 내담자의 강점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실제로 상담에 지침이 될 만한 내담자 강점의 개념과 개입 방식들에 대한 연구 보고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강점에 대한 관심은 상담 실제의 맥락에서 더 나아가 내담자 강점 요인에 대한 탐색과 그것을 인식하는 상담자의 특성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된 강점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특질에 초점이 있다면, 강점 인식은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Govindji & Linley, 2007). 이에 본 연구에서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강점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수준과 정도로 정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내담자 강점에 관한 상담자의 실재를 검토한 연구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내담자 강점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권혜경, 이희경, 2013)가 이루어졌다. 권혜경과 이희경(2013)은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 요인과 활용 방법을 비교 제시하면서, 그동안 경험적 연구로서 간과되어왔던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초심상담자들은 관찰 가능한 내담자 특성을 강점으로 인식한 반면, 숙련상담자들은 변화에 대한 동기와 실행력이라는 두 개의 차원에서 성장 동기, 성공 경험과 문제 해결력, 개인 내적 자원, 대인관계 능력을 내담자 강점으로 인식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국내 연구로는 청소년 상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유진(2016)의 합리적 질적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강점과 자원 활용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과 경험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상담자들은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강점과 자원의 활용을 중시하였고, 주로 초기 면담과 관찰에서 파악한 내담자의 강점을 상담 목표와 전략에 활용하여 상담 과정 및 성과 측면에서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국외 연구로는 미국 상담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Scheel, Davis와 Henderson(201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내담자의 강점 활용에 관한 상담자의 경험과 인식을 검토하였고, 강점

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 및 고려해야 할 맥락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강점 중심의 상담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과 장애 요인들이 도출되었고, 내담자 문제 유형에 따라 강점 활용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상의 연구들은 그동안 경험적 연구로서 간과되었던 내담자 강점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과 활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 중에서도 내담자 강점의 인식과 활용에서 확인된 상담자의 발달적 차이(권혜경, 이희경, 2013)는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의 특징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고문정, 2016; 김대원, 김영주, 이지원, 장재현, 2013; 이수립, 조성호, 2009; 이현아, 이수원, 1997)을 살펴보면, 초심상담자는 상담심리사 2급 이하에 3년 미만 경력의 상담자이고 숙련상담자는 상담심리사 1급에 5년 이상 경력의 상담자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상담자의 경력 수준은 상담자의 전문성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상담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객관적 자료이다(김계현, 문수정, 2000). 상담자의 인지적·정서적·태도적 특성이 상담 경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Jennings & Skovholt, 1999; Spengler & Strohmmer, 1994). 그러기에 전문성 발달에 있어서 숙련상담자는 발달 과정에서 축적된 인지적·정서적·태도적 특성을 바탕으로 성찰을 통해 전문성 발달을 도모하고,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Neufelt, Karno, & Nelson, 1996; Ward & House, 1998). 이로써 숙련상담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집중하고 파악하는 등 내담자의 다양한 측면들을 지각하는데 질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Dreyfus와 Dreyfus(1986)는 한 분야의 초심 단계란 예외 없이 완고한 규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전문적인 수행 능력이 발달되어가는 과정은 ‘객관적이고 맥락 없이’ 추론하는 것에서 ‘주관적이고 맥락적인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상담자의 전문성은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상담자의 능력과 기술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Skovholt & Ronnestad, 1992). 특히, 상담자는 전문성이 발달함에 따라 상담 과정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하는데 (Chi, Glaser, & Farr, 1988),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은 숙련상담자의 경우 내담자의 실제적인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과 인지적 이해 기술 및 문제 해결력을 갖추고 있고(Hillerbrand, 1989), 좀 더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내면의 원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Martin, Slemon, Hibert, Hallberg, & Cummings, 1989). 또한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파악하여 그것을 다양한 준거로 사용하고, 내담자의 표현 이면에 깔려있는 욕구와 갈등을 파악한다. 이를 기반으로 그들은 내담자의 긍정적인 특성과 성공 경험 등의 장점과 더불어 문제나 증상과 같은 약점, 그리고 사회·심리적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게 된다(Jennings & Skovholt, 1999; Martin et al., 1989). 위와 같이, 상담자는 문제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작용하는 강점과 문제로 인해 가려져 있는 가능성을 반드시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의 전문적인 태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자기 강점을 인식하는지의 여부는

상담자 변인의 영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Black, 2001; Harter,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은 성숙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상담자의 관점이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숙련상담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상담자의 발달적 양상에 대한 이해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처럼 내담자의 강점을 인식하는 상담자 관점의 발달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상담자의 역할과 태도 및 관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담자의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상담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질적 연구 방법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된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그 중에서도 근거이론 방법은 ‘참여자가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접근법(신경림, 김미영, 2003)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 자체를 깊이 있게 탐색하면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이론 방법론(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8)을 적용하여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과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발달의 촉진 요인과 과정상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내담자 강점 인식이라는 맥락에서 상담자의 발달 과정을 탐색하고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회고적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내담자의 강점을 인식하는 상담자의 관점은 어떤 과

정으로 발달하는가?’로 정리될 수 있다.

방 법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상담자의 전문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강점을 인식하는 관점이 어떻게 발달되어 가고 무엇을 통해 성장해 가는지를 탐색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이론 접근 방법(grounded theory approach)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아직 현상에 적합한 개념이 확인되지 않고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기존의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기존 이론이 수정 또는 명료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활용하기 좋은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 접근 방법은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특정한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맥락과 관점에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생성한다. 이는 자료 수집과 분석에서 사용하는 전략이면서 근거이론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Brick & Mills, 2015). 내담자 강점에 관한 상담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점 기반의 상담 모형들은 인식 과정의 맥락적 부분이 보완되고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자가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역량의 발달에 관여된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강점 인식 발달 과정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근거이론을 선택하였다.

연구 절차

참여자 선정 및 특성

본 연구는 근거이론에서 강조되는 ‘이론적 표본 추출(theoretical sampling)’과 상담전문가와 수퍼바이저들의 추천을 받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Gall, Gall, & Borg, 2003)을 활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이소연, 최바울, 이정선, 서영석, 2014). 눈덩이 표집 방식은 표본의 ‘적절성’을 위해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적합한 사례들을 비교적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편의 표집의 일환이다(고윤희, 박성현, 2014). 주로 심층적이고 질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적절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참여자 선정 기준을 세웠다. 연구 참여자는 내담자의 강점에 관심이 있고, 이와 관련된 상담 경험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자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숙련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들(권혜경, 이희경, 2013; 김혜미, 오인수, 2016; 이명우, 박정민, 이문희, 임영선, 2005)에서 사용한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료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상담 경력이다. 본 연구에 참여할 숙련상담자는 개인 상담 경력 10년 이상, 전문가 자격 취득 후 경력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을 고려하였다. 둘째, 학회별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였다. 셋째,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다. 넷째, 상담 분야에서 숙련상담자로 인지도를 가진 자이다. 인지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상자를 선정하

기 위해 지명 방법(nomination process)을 사용하였다.

Luborsky, McLellan, Woody, O’Brien과 Auerbach (1985)는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이 방법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상담자들이야말로 다른 상담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잠재적으로 유능한 상담자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료 상담자나 수퍼바이저로부터 ‘내담자 강점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상담과 수퍼비전을 수행하는 상담자’로 추천받은 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추천을 위한 기준(Jennings & Skovholt, 1999)은 다음과 같다. 내담자 강점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상담자를 떠올릴 때, (1)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2)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를 의뢰할 때 가장 자주 생각하게 되는 사람, (3) 상담자 자신이 상담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담자이다. Patton(1990)은 특정한 개인들이 반복적으로 지명되고, 새로운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을 때 지명절차를 종료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 때까지 지명절차를 계속하여 총 19명의 전문가가 지명되었다. 그 중 2번 이상 지명되고, 현재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 15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숙련상담자는 모두 상담 관련 1급 전문가 자격 소지자로서, 성별은 여성 13명, 남성 2명이었다. 40대가 9명, 50대가 4명, 60대가 1명, 70대가 1명으로 평균 연령은 51.2세이다. 최종 학력은 석사 4명, 박사과정 1명, 박사수료 및 박사가 10명이다. 이들은 개인 상담소 및 상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상담 경력은 최소 13년 ~ 최장 40년, 평균 21.5년으로 나타나 상담자

표 1.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대	학력	총 상담 경력	1급 자격 취득 후 경력
1	여	50대	박사	18년	10년
2	여	50대	박사수료	20년	12년
3	남	40대	박사과정	13년	9년
4	남	50대	박사	23년	13년
5	여	40대	박사	26년	10년
6	여	40대	박사	20년	17년
7	여	40대	석사	20년	15년
8	여	40대	박사	20년	15년
9	여	70대	석사	40년	33년
10	여	40대	박사	18년	13년
11	여	40대	석사	15년 11개월	10년
12	여	50대	박사	29년	20년
13	여	60대	박사	22년 11개월	23년
14	여	40대	석사	21년	9년
15	여	40대	박사	16년	13년

경력으로도 숙련기 이상에 해당하였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경력이 최소 9년~최장 33년으로 나타났고, 평균 상담전문가 경력 기간은 14.5년이였다. 이상의 기준에 의해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자 준비도

질적 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도구’이므로 연구 주제에 관해 어떠한 믿음이나 가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연구자가 가진 가정이나 선이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Lincoln & Guba, 1985). 이는 참여자의 진술을 듣거나 자료 분석을 할 때 연구자의 판단을 중지하고 연구자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대로 진술을 해

석하거나 유도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한다(Crotty, 2001).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워크숍을 6회 이상 이수한 경험이 있으며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근거이론 워크숍을 2번 참석하였다. 질적 연구로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1회 있으며,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 대회에서 내담자 강점에 관한 질적 연구로 발표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다수의 논문 평정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내담자 강점과 관련된 주제의 강의와 논문 스터디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상담자로서 17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내담자 강점에 기반한 상담을 지향하는 상담 전문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자의 이런 이력은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인터뷰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쌓고 경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활용되었다.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가정을 배제하고 탐구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의 심층 면담을 통해 실시되었다. 연구 시작 전, 2차례의 예비 면담 실시 후 5번의 질문지 수정이 이루어졌다. 즉, 예비 면담을 수행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을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예비 질문지는 전문가 자문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1차 수정을 실시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숙련상담자 1인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2차 수정을 진행하였다. 수정 후 연구 참여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숙련상담자 1인에게 면담 실시 후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3차 수정을 실시하였다. 수정된 질문지는 전문가 삼각화 검증을 통해 4차 수정을 실시하였다. 5차 질문지 수정 단계에서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상담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상담 전공 교수 1인과 긍정심리학 및 강점 연구가 주요 연구 분야인 상담 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본 연구를 위한 최종 면담 질문을 선정하였다. 문항의 예로서 “내담자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식한 강점이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나요? 초심상담자 때와 숙련상담자인 지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달라졌나요? 달라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관련된 경험이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내담자의 강점을 잘 인식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있으신가요?” 등이 수정 보완되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은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15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면담은 본 연구자가 참여자 모두를 면대면으로 만나 진행하였다. 특히, 면담은 면담-추후 면담 설계(interview-follow-up design)를 사용(첫 번째 면담 + 추후 면담)하여 대화 전반에 대한 타당도(validity through dialogue)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면담을 한 참여자들이 각 범주가 자신의 이슈와 관심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인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경인, 지희수, 2010). 이를 위해 1차 면담은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추후 면담은 2018년 9월에 진행하였다. 1차 면담은 심층 면담으로 진행하였고, 인터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소개와 목적을 기술한 자료와 간단하게 축약된 질문지를 보내어 내담자의 강점을 인식하는 상담자 관점의 발달 과정을 회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1차 면담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직접 서명 및 신상에 관한 기본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60분에서 90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Corbin과 Strauss(2009)의 권고에 따라, 인터뷰 초반에는 연구 주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개방적 질문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첫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의 소속, 연락처,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의 자발성, 참여 의사 철회 가능, 인터뷰 녹음, 개인 정보의 보호와 같은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얻었다(박승민 등, 2012). 연구가 끝난 뒤 구체적으로 인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 참여자 별로 허락을 받아 원하지 않을 경

우 인용을 제외하는 방식(조윤진, 이은진, 유성경, 2014)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중 참여자의 언어 표현, 비언어적 표현에 집중하며, 자료 분석 시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할 사항은 따로 연구 노트에 기록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박철옥, 2014). 추후 면담은 1차 면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1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면담 내용 전사본을 미리 이메일로 보내고, 이후 연구 참여자를 만나 근거이론의 개방 코딩, 축 코딩에서 발견된 범주 및 선택 코딩의 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추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설명을 들은 후 참여자들은 그들이 의도한 내용과 개념으로 이론이 형성되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수행과 연구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 No. 1040395-201804-08).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본 연구자는 녹음된 면담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여 축어록으로 작성하였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체적인 인식을 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과정인 코딩 작업을 거쳤다. 개방 코딩(open coding)은 원자료를 통해 발견된 개념(concept)에 이름을 붙이고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개념들을 하위 범주(sub category)로 묶은 후 범주(category)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2003). 본 연구자는 한 줄씩 면담한 내용의 의미를 분석해 나가는 줄 단위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축 코딩(axial coding)은 개방 코딩에서 출현한 범주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결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축 코딩은 개방 코딩을 통해 해체된 자료 및 범주들을 관련 있는 형태로 재조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2003). 축 코딩에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과 과정 분석이 있다. 패러다임 구성 요소들을 연결시키는 모형은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맥락(context),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결과(consequence)를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과정 분석(process analysis)은 자료에서 작용/상호작용으로 표현되는 범주와 하위 범주 간의 연속적 연결을 탐색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을 말한다(Strauss & Corbin, 2003).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15인의 사례 각각을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기술한 후, 참여자들이 나타내는 작용/상호작용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통합하였다.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은 범주를 통합하고 정련화시키는 과정으로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자는 핵심 범주를 명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 15인의 사례 각각의 이야기 윤곽을 적었으며, 도표를 이용하여 중재적 조건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요약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전체 참여자들의 내담자 강점 인식에 대한 관점의 발달 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 범주를 정교화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평가 기준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사실적 가치란 양적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신빙성(credibility)이라고도 표현한다. 이것은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분히 서술하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박승민, 2005). 본 연구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진 반구조화된 질문들과 심층 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분석을 마친 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각각의 개념과 범주명이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member check)을 거쳤다. 적용 가능성이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외적 타당도란 연구 결과가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Guba와 Lincoln(1981)은 질적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적합성(fittingness)이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적합성이란 연구 결과가 연구 이외의 상황에서도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독자들이 연구 결과를 읽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있다고 여기고 적용 가능한지를 확보해보는 것이기도 하다(박승민, 2005). 본 연구에서는 적용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비슷한 경력의 상담전문가 2인에게 본 연구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하게 하였다. 일관성이란 양적 연구에서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슷한 조건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반복했을 때 그 결과가 동일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자가 사용한 방법을 다른 연구자가 사용했을 때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때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박승민, 2005).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분석과정 단계마다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근거이론 방법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상담심리 전공 교수 1인과 연구 과정 전반 및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감수받았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상담전문가 1인과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중립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는 다른 동료 연구자와 연구 주제, 목적, 의도 그리고 연구 결과를 거듭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와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의 다원화의 삼각검증을 중요시하는데 본 연구는 면담자료, 현장일지, 연구노트를 활용하여 자료수집원의 삼각검증을 거쳤다.

결 과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상담자 관점의 발달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숙련상담자 15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68개의 개념, 56개의 하위범주, 19개의 범주도출되었다. 개방 코딩에서 나타난 개념과 하위범주 및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발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축코딩에 제시되는 각 조건(인과, 맥락, 현상, 중재, 상호작용, 결과) 별로 정리하면 표 2부터 표 7과 같다. 이를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쳐 각 조건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패러다임 모형으로 정리하고,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분석을 통해 과정 분석과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의한 숙련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과 패러다임 모형

인과적 조건: 현상이 일어나는 계기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은 ‘현상’을 발생시키거나 발달하게 하는데 영향을 준 사건이나 변수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중심 현상인 ‘상담자로서의 위기감이 고조됨’은 내담자 강점을 ‘고정된 틀에서 인식함’과 ‘피상적인 수준에서 개입함’이라는 인과적 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문제대로 있고 강점은 그 외에 따로 발견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내담자가 걱정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우울해하면, ‘근데 당신은 이런 강점이 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중략> 강점을 통해서 힘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거죠.” (참여자 10)

맥락적 조건: 현상 발생과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적 조건(context)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 현상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유능함과 성과에 몰입’과 ‘상담자 중심의 상담’이 나타났다.

“결과가 눈 앞에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초심자 때는 상담자로서 상담을 잘하는 것에 엄청 꽂혀 있었죠. 유능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어요.” (참여자 8)

“상담자가 혼자 다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게 있잖아요.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신음하는거? 동맹이라고 얘기하지만, 상담자 혼자 애쓰고 내담자는 따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막 해 놓고 내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막 가는거잖아요.” (참여자 10)

표 2.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대한 인과적 조건

개념화 정리	하위범주	범주
• 내담자를 문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에 맞춰 강점을 인식함	수련 과정의 지침에 맞춰 이분법으로 인식함	고정된 틀에서 인식함
• 문제와 강점을 별개의 것으로 인지함		
• 무엇을 강점으로 봐야 하는지 알지 못함	강점의 개념이 생소함	
• 상담자의 논리에 기반하여 내담자 강점을 설명함	강점을 먼저 언급함	피상적인 수준에서 개입함
• 기운나게 해주기 위해 강점을 알려줌		
•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도록 조력함	지지와 격려로 강화함	
•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안심시킴		

표 3.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대한 맥락적 조건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성과가 눈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여김 • 상담자 자신의 진로, 성취, 학위에 관심이 더 많음 	유능한 상담자가 되기 원함	유능함과 성과에 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접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진행이 어려운 이유를 상담자 역량 부족이나 내담자의 한계로 인식함 	상담의 성과 여부를 분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상담자가 변화의 주체라고 여김	상담자 중심의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담자 문제가 됨 	상담자 관점으로 판단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을 피상적으로 이해함 		

중심 현상: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문제

중심 현상(phenomenon)은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된 현상은 ‘상담자로서의 위기감이 고조됨’이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상담 방식을 열심히 한거죠. 그런데 제가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가 자유로워 지지 않고 뭔가 계속 고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중략> 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답답하고 ‘이것이 진짜 상담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같아요.” (참여자 7)

“가까운 분이 사망을 하셨거나, 실명이 되어가고 있거나, 몸이 굳어간다거나... 이런 분들을 상담하면서 내가 기법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통찰을 시키

고 자각을 시킬 수 있는게 아니라, 뭔가 큰 벽에 부딪힌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 15)

또한, 참여자들은 내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강점을 인식하는 자신의 방식을 알아차리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가 하려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강점으로 봤죠. <중략> 내가 상담자로서 내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문제 해결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행동에 걸맞는 점들을 강점으로 찾아내고 <중략> 상담자가 주체가 되어서 내담자 강점을 보는 거죠” (참여자 5)

표 4.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대한 중심 현상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이라는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됨 • 범접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만남 	문제 중심의 접근 방식에 한계를 경험함	상담자로서의 위기감이 고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점에 따라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짐을 경험함 	기존과 다른 관점을 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소 문제와 무관한 내담자 강점을 찾음 	강점 인식의 주체가 상담자임을 알아차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상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점들을 강점으로 인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개입에 도움이 되는 특성을 강점으로 인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성이나 활용 가능한 자원을 강점으로 인식함 		

중재적 조건 : 현상의 변화에 개입된 요인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앞서 언급한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변화시키는 데 작용한 경험들을 말한다. 즉,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로서 상담과 상담자 역할에 집중함’, ‘내담자의 내적인 힘을 알아차림’, ‘강점 인식의 필요성을 깨달음’, ‘내담자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음’으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저한테 말로 설명해야 하는 수퍼바이저의 역할이 상담자 역할을 의식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상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언어화해서 가르치다보니,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거죠. 내담자의 문제나 강점을 내가 단순히 아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말할 수 있으니까.” (참여자 2)

“죽어가는 자신을 매 순간 직면하는데, 심장이 마비될 때까지 무엇을 추구하고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도 못하겠는거예요. 용기있게 하시는걸 보면서 상담은 내가 주도하는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죠.” (참여자 15)

“사회적 기준으로 강점을 판단하면 내담자도 좌절하고 상담자도 무기력해지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생각하면 상담자가 덜 무기력하고 내담자를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예를 들어, 내담자가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슬퍼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지적 수준을 갖고 있다면, 너무 복잡해지거나 너무 자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되는거죠.” (참여자 14)

“맨날 듣는 내 장점을 상담에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담자 역할을 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로저스 이론에서 말하는 ‘a person으로 앉아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갖추면서 나라는 캐릭터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 그 깨달음이 제일 컸어요.” (참여자 2)

또한,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관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림’과 ‘강점 인식에 대한 이해가 심화됨’이 경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바라보고,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의깊게 보면, 내담자가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 힘들,

또 그 안에 반드시 존재하는 변화 과정들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죠. 문제 안에도 강점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정서적으로 어렵거나 관계적으로 힘들 때, 굉장히 고립이 되어버리는 내담자. 그것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방식인거죠. 외로워지는 방식이지만, 스스로 자기 보호를 위해 선택한거예요.” (참여자 6)

“계속 상담을 해보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거 같아요. ‘내담자는 결국 자기에게 좋은 길을 찾아간다. 그런 점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 그래서 강점이 보이지 않고 금방 나타나지 않고, 조바심이 나지만 그것을 잘 견뎌야 하는 거죠, 내담자와 같이.” (참여자 13)

표 5.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대한 중재적 조건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바이저의 상담 과정을 재경험하기 위해 상담자 역할에 집중하여 사례를 검토함 	슈퍼바이저 경험을 통해 상담자 역할에 대해 숙고함	슈퍼바이저로서 상담과 상담자 역할에 집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 강점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반응과 상호작용을 관찰함 • 상담자 발달 수준에 따라 내담자 강점과 문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찰함 	강점에 대한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내담자를 만남 • 내담자가 통찰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삶에 즉시 적용하여 변화를 이루어냄 	변화의 주체가 내담자임을 경험함	

표 5.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대한 중재적 조건

(계속 1)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없이 종결했다고 생각한 사례의 내담자가 그 당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과정을 인내하고 충실히 임했던 내담자가 결국 변화를 이루어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과 수준으로 강점에 대해 나눌 때 내담자의 동기가 촉발되는 것을 경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성 있는 반응으로 강점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면서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것을 발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수록 강점이 발견되고 이로 인해 내담자도 심리적으로 안정됨을 경험함 	강점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경험함	강점 인식의 필요성을 깨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각한 문제나 증상을 호소하는 내담자일수록 강점을 인식해야만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음을 경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담자 강점이 작동되어야 상담 성과가 있음을 알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단점이 장점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경험함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단점이 장점으로 작용되기도 함을 경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문제만이 아닌 상태가 됨을 인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담자 강점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피드백을 듣게 됨 	강점 개입 과정에서 내담자의 저항을 경험함	내담자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상담자의 피드백을 내담자가 수용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자가 내담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함 	주체적인 강점 인식을 위한 상담자 역할에 대해 고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인 힘과 강점을 알아차리도록 조력하는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 		

표 5.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대한 중재적 조건

(계속 2)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자신이 존재 자체로 소중한데 그것을 망각하고 부족함을 쫓고 있었음을 알아차림 • 편견과 경직된 관점으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림 	관점의 변화는 상담자 정체성과 인간적인 성숙도에 근거함을 알게 됨	상담자 관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분법적인 틀은 관점을 바꾸지 않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 • 상담자의 환경이 여유롭고 안정될 때 강점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짐을 알게 됨 • 판단·평가하지 않고 강점을 인식하기 위해 매순간 상담자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내담자를 만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차림 • 강점을 인식할 때 상담자가 내담자를 문제시하지 않고 내담자에게 집중할 수 있음을 깨달음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중요성을 깨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을 문제로만 볼 때 그 증상이 의미하는 것을 놓치게 됨을 깨달음 • 내담자의 문제 행동은 심리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자기 위로 방식일 수 있음을 깨달음 • 내담자의 기능적인 측면이 과사용으로 문제가 되어 상담에 오는 것임을 알게 됨 	문제 안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분석을 통해 상담자 자신의 강점을 알게 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됨 •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담자 자신의 내적인 힘을 알아차림 • 상담자의 강점이 발휘되는 것이 상담 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경험함 	상담자 자신의 강점을 재발견함		강점 인식에 대한 이해가 심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점 활용 시, 상담자가 활용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자각해야 함을 깨달음 • 강점 활용 시,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음 	강점 인식은 명확한 이해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함을 깨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약점과 강점을 모두 가진 통합적 존재임을 깨달음 • 자기 이해와 수용의 과정이 강점 인식에 중요함을 알게 됨 	강점 인식에 상담자 태도가 중요함을 깨달음		

표 5.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대한 중재적 조건

(계속 3)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소문제와 별개로 내담자 자체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의미 있게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함 		

작용/상호작용: 현상의 해소를 위한 대처 전략

작용/상호작용(action/reaction)은 당면한 문제 또는 경험하고 있는 중심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총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현재 상태에 집중함’과 ‘강점에 대한 상담자의 관점과 자세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내담자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현재의 상태인거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참여자 12)

“실제로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또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보나? 잠깐, 이견 뭐지?’ 좀 더 자각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자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요.” (참여자 3)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내담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조금 떨어져서 내담자를 보려고 하죠.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에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선명해져요. 그래서 강점은 내담자가 느껴야 되고, 그가 알아차려야 할 것들은 내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

력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3)

더불어,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며 수행하고 반응하는 데 쓰이는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와 관련된 강점을 인식하기 위해 상호작용에 집중함’, ‘내담자가 주체적으로 강점을 인식하도록 조력함’, ‘관점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 나타났다.

“참는 것이 강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취약한 면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이나 경험에서 체험하는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를 생각해요. 한 면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대인관계 문제로 상담에 온 내담자의 경우, 그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덜 느끼게 되었고, 그 시간에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문제를 호소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애써왔던 것을 알게 되면 자기 비난이라던가 부적절감이 조금 없어지게 되죠.” (참여자 14)

“상담 과정 중에 확인된 강점을 다루면 내담자들이 그 과정에 몰입하고 관여하게 되요. ‘저는 들을게요, 얘기하세요’

가 아니라, 내담자 자신이 참여하게 되죠. 그럼 그 과정에서 또 서로 많은 것들을 나누고 느끼게 되죠.” (참여자 10)

“처음부터 문제인 것은 없죠. 내담자에게 숙련된 것,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강점들이 과사용되어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때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죠. 문제로 인식하기 전에는 그 강점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을 거예요. 그 강점을 진짜 강점으로 만들어 주려면 그 자동화되었던 것, 그래서 과사용된 것에 대해 의식화시켜야겠죠. 이것이 상담의 과정인

거 같아요. <중략> 나는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한 그것을 강점으로 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는거죠. 근데 내담자가 거부하면,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 가설은 기꺼이 철회되어요.” (참여자 2)

“상담자도 자기 강점을 끊임없이 인식하지 않으면 또 자꾸 못한 점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강점에 대해서도 자각하려고 해요.” (참여자 11)

표 6.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숙한 모습은 현재의 내담자 상태이고, 그 상태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짐 • 현재 상황이 힘든, 온전한 존재로 내담자를 바라봄 	내담자의 상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음	내담자의 현재 상태에 집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는 제한적인 관점과 틀 안에서 자기를 인식할 수 있음 • 내담자의 부정적인 자기 개념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함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어려움을 이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처한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파악함 • 비교 시, 타인이 아닌 내담자 자신의 기저선과 비교함 	내담자의 자기 이해 정도를 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 자신이 불편한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면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 • 상담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각하고 점검함 	상담자 자기 상태에 주의를 기울임	강점에 대한 상담자의 관점과 자세에 주의를 기울임

표 6.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계속 1)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점을 찾기 위한 개입을 하지 않음 • 내담자가 인정하지 않는 강점은 더이상 강점이 아님 • 내담자 고유의 좋은 점에 관심을 가짐 • 내담자는 자신에게 좋은 길을 찾아간다고 믿음 	내담자 강점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쁜 일상 • 내담자 변화에 의구심이 들 때 강점이 보이지 않음 • 상담자가 자신의 관점을 자각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내담자의 강점을 인식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 강점에 대한 피상적인 상담자 반응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임 • 내담자와 관련된 것들을 당연하게 보지 않음 • 내담자를 증상이나 진단으로 평가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귀한 사람으로 내담자를 바라봄 	진정성과 책임감으로 강점을 인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이야기 전개 방식을 전환 시킬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되, 문제 상황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 • 삶을 이해해왔던 방식으로 내담자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해보도록 함 • 익숙한 자기 방식에 의문을 갖도록 개입함 • 자기 방식의 모순을 발견하고 효율성을 검증하도록 함 	익숙한 자기 방식의 모순을 알아차리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문제 행동이 적절하게 기능하여 강점으로 활용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통해 새로운 조망을 갖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증상이나 문제를 겪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봄 • 호소 문제 이면에 있는 내담자의 소망에 의미를 부여함 • 내담자 자신이 변화에 대해 힘들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함 •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파악하게 함 	문제 행동 이면의 내담자 성장 동기에 공감함	문제와 관련된 강점을 인식하기 위해 상호작용에 집중함

표 6.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계속 2)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기저선을 고려하면서 강점을 인식함 • 작은 것이라도 내담자의 기능적인 점들을 찾고 나눔 • 새롭게 재조명되는 내담자의 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함 	내담자 강점을 내담자 경험과 연결지어 반응함	내담자가 주체적으로 강점을 인식하도록 조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통찰할 수 있도록 상담에서 나누었던 경험들과 강점을 연결지어 언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강점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개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자기 환경과 경험을 다른 관점을 보게 되고, 의미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줌 	적절한 시점을 고려하여 강점에 개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가 인식한 내담자 강점을 내담자도 강점으로 인식하는지 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가 인식한 내담자 강점을 하나의 가설로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의 피드백을 내담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지 확인함 	갈등 대상과의 어려움 속에서 내담자의 강점을 알아차리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담자의 동기에 영향을 주었을 갈등 대상과의 긍정적 경험을 예측함 • 문제로 판단한 경험이 자원이기도 했음을 알아차리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당연하게 여기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줌 	내담자가 강점을 당연하게 여길 경우,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개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모두 볼 수 있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선택하고 결정한 경험에서 무엇을 체험했는지 경청함 	내담자 선택과 책임감에 주의를 기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선택한 경험 안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책임졌던 태도와 대처방안들을 경청하고 반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 내적인 과정을 살펴보게 함 		

표 6.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계속 3)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가 인식하고 제시한 내담자 강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 그 순간에 더 집중하여 공감하고 경청함 	방어적인 내담자 반응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함	관점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re and now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각자의 심정과 관점을 공유하고 수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강점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내담자의 모습과 어려움을 반영하고 공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다음 회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 노력함 	매 회기를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의 지혜와 지식, 경험을 동원하여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고 조력하기 위해 노력함 	상담 시간 외에도 내담자를 위한 시간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 점검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만날 내담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자기 수련(명상 등)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상을 지속하면서 상담자 자기 관점을 점검하기 위해 노력함 	삶과 일이 일치되도록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경험을 좋게 여기고, 좋은 것을 실현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삶과 인간관계 안에서 강점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자신이 노력하고 애쓴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알아줌 	삶을 즐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현재를 느끼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만족하기 위해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쁘지 않게 지내면서 여유를 가지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한 대상일수록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함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자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의 긴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함 		

결과 : 현상에 대처하며 적용해 온 결과

결과(consequences)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 긍정적 영향을 줌’, ‘상담자 전문성에 영향을 줌’, ‘상담자의 개인적 삶에 영향을 줌’으로 나타났다.

“자기가 느낀 것들을 강점으로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담자가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니까, 안전감을 느끼면서 여유가 생기고, 상담자한테 이해를 받은 만큼 스스로 타당화가 되면서, 자기 것들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자기 강점으로 생각하게 되는거죠.” (참

여자 14)

“내담자의 강점이야말로 상담의 성과를 좌우하는 거구나.’ 이것을 느꼈죠.” (참여자 15)

“상대가 내 의견을 꼭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 입장은 선명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상대는 그것을 충분히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너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랑 다르다고 얘기하지.” (참여자 12)

표 7.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대한 결과

개념화 정리	하위범주	범주
• 내담자가 상담자의 관점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함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상담에 긍정적 영향을 줌
• 상담자의 피드백을 더 듣고 싶어 함		
• 내담자 스스로 자기 강점을 인식함	스스로 강점을 발견함	
•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낌		
• 내담자가 자신감을 갖게 됨		
• 자신을 좋게 보고 있는 상담자의 시선 안에서 내담자가 편안함을 느낌	자기 수용과 자기 개방	
• 내담자가 자기 개방에 주저하지 않음		
• 내담자가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 탐색에 충실히 임함		
• 상담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관계 형성과 소통	
• 상담자와 진솔한 소통을 원활히 하게 됨		
• 상담 성과에 효과적임		
• 내담자의 삶의 모습에서 강점이 선명하게 인식되고 함께 나누게 됨	더 많은 강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됨	상담자 전문성에 영향을 줌
• 좋은 시선으로 내담자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강점들을 발견하게 됨		

표 7.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대한 결과

(계속 1)

개념화 정리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가진 본연의 가능성을 더 이해하고 받아드리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보다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신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인간 존재로서의 한계로 판단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기질적인 한계에 대해 선불리 속단하거나 판단하지 않음 	통합적 관점을 갖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 역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평가적으로 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지 않는 이면의 마음을 소중히 다루고 가꾸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를 인간적으로 더 환영하게 됨 	내담자에게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를 내서 상담에 온 내담자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경청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이 많은 상담 과정을 함께 견디며 지속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서두르지 않음 	내담자 문제와 요인에 압도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보이는 행동, 감정, 사고패턴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수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와 에너지를 주고 받으며, 소진감이 크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정의와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해짐 	상담자로서 신념과 확신을 갖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가 가진 인간관, 태도, 관점에 책임감을 갖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서 자유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나 자신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짐 	삶의 경험과 변화를 수용함	상담자의 개인적 삶에 영향을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그러워지고 개방적이며 유연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경험하는 것을 다양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됨 		

표 7.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대한 결과

(계속 2)

개념화 정리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함 	개방적인 태도로 현재의 삶을 즐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의 지금 모습을 그 사람의 전체 모습으로 속단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켜보며 좋은 점을 보게 됨 	이해의 폭이 확장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거절할 권리를 존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해낼 것이라 믿고 바라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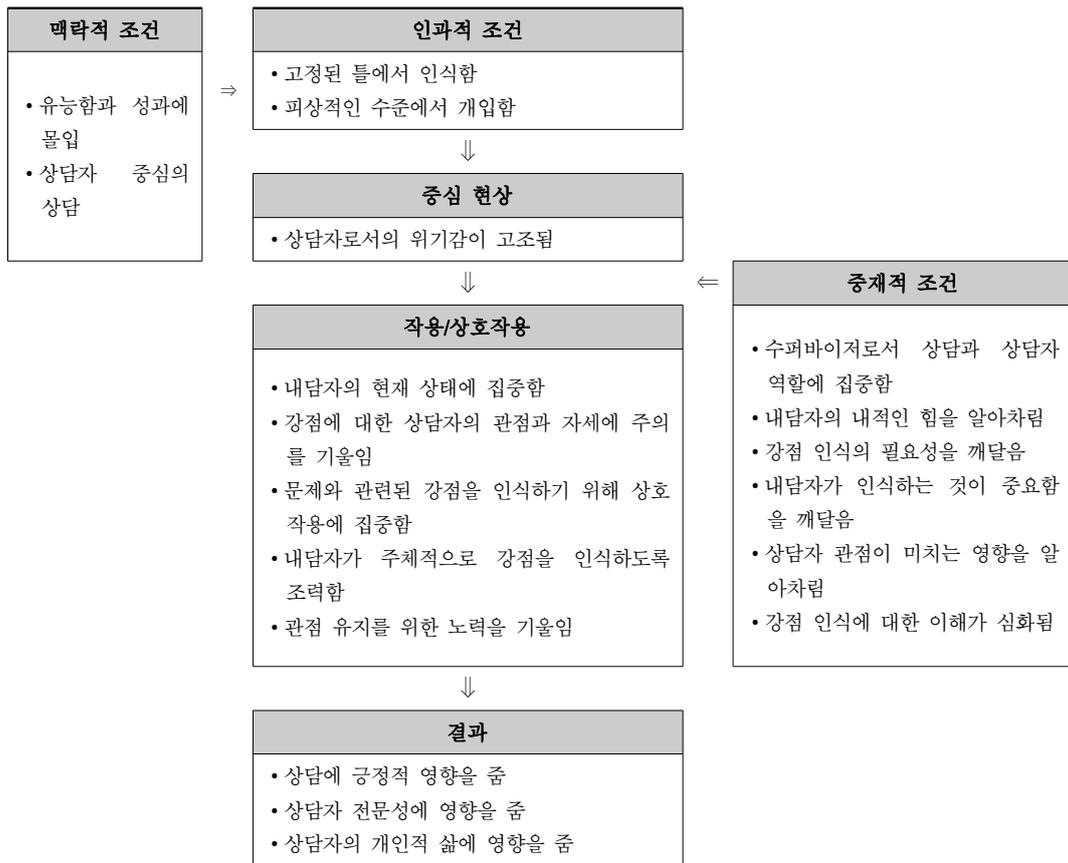


그림 1.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은 작용/상호작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나 맥락이 변화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확인하고 변화의 인과 요인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다(Strauss & Corbin, 2003).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상담자의 관점이 발달해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해 단계’, ‘재구성 단계’, ‘명료화 단계’, ‘통합 단계’, ‘통합 유지 단계’로 5단계의 과정이 확인되었다. 각 단계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일부는 순환 형태의 과정을 나타낸다. 이것은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이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성장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계별 중복이 가능하며 역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단계: 이해 단계

이해 단계는 참여자들이 고정된 인식 틀로 내담자 강점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존과 다른 관점으로 강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의 위기감을 감지하고, 상담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담자와 상담 실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노력하였다. 수퍼바이저 경험과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강점 인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상담자의 관점과 태도를 자각하게 하였다. 개인적인 경험과 내담자로서의 상담 경험은 강점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키고, 강점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각 이론과 기법이 갖는 강점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처럼, 강점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알아차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상담자의 태도와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재구성 단계

재구성 단계는 참여자들이 기존보다 확장된 강점 개념으로 내담자의 강점을 재구성하는데 집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현재 상태에 집중하고 문제 상황 속에서도 발휘되고 있는 내담자의 강점에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내담자가 현재 자기 강점을 인식하고 발휘하는 정도를 관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상담자가 인식한 강점을 재구성하여 내담자도 알아차리고 수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삶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내담자의 호소 문제와 증상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문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면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강점으로 재구성하는데 집중하였다.

3단계: 명료화 단계

명료화 단계는 참여자들이 내담자와 함께 문제와 관련된 강점을 탐색하고 이해하면서 내담자 강점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재구성 단계에서 자기 이해가 증진된 내담자들과 함께, 과거에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이 현재는 어떻게 문제로 인식되어 호소하는지를 탐색하고, 문제와 함께 현재 발휘되고 있는 강점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는데 집중하였다. 이 단계에 이른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문제 표현 방식, 그 방식의 모순, 문

제가 강점이 되었던 지점, 문제 이면의 강점 등을 명료하게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강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최소화하지만, 내담자가 자기 문제와 강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이는 내담자가 기존과 다른 관점으로 강점에 대해 새롭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단계: 통합 단계

통합 단계는 참여자들이 내담자의 현재 상태와 강점을 조화롭게 통합시켜 강점이 내담자의 삶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통합은 ‘내담자의 현재 상태’와 ‘강점’을 연결시키고 내담자 스스로 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내담자가 강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확인되는 강점의 경우 즉시 강화하기 위해 지금-여기에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가 저항을 보이는 경우, 참여자들은 자신이 내담자 강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고, 이 과정에서 1단계인 ‘이해 단계’로 역순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자의 개인적 인 요인이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과정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속 단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마지막 단계인 ‘통합 유지 단계’에서 강점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는 노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자들은 2단계인 ‘재구성 단계’로 역순환하면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자기이해와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수용 수준을 점검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내담자가 주체적으로 강

점을 인식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강점에 성급하게 개입하고 반응하기보다 내담자의 문제 유형과 자기 이해 수준을 고려하면서 강점에 개입하였다.

5단계: 통합 유지 단계

통합 유지 단계는 참여자들이 강점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강점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는데 집중하였고, 자기 관점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내담자를 맞이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범주: ‘관점의 확장을 통해 강점의 통합적 의미를 내면화하고 내담자의 주체적인 강점 인식을 조력함’

핵심 범주(core category)는 지금까지 도출된 모든 범주를 꿰뚫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본 연구가 무엇에 관한 연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Lincoln & Guba, 1985). Strauss와 Corbin (1996)이 제시한 6가지 기준(빈도, 연결성 등)에 따라 도출된 본 연구의 핵심 범주는 ‘관점의 확장을 통해 강점의 통합적 의미를 내면화하고 내담자의 주체적인 강점 인식을 조력함’으로 나타났다. 즉,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상담자 관점의 발달 과정이란 강점에 대한 고정된 관점에서 상담자로서의 한계와 위기감을 체험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들에서 강점의 통합적 의미를 내면화하는 성숙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강점에 대한 관점이 확장된 상태에서 문제와 강점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주체적으로 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상담자의 발달 과정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가 경험한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 그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극복 방법, 그리고 그것이 상담자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상담자 관점의 발달 과정은 ‘관점의 확장을 통해 강점의 통합적 의미를 내면화하고 내담자의 주체적인 강점 인식을 조력함’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점을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다가 다양한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강점이 통합적인 의미로 재구성되어 참여자들의 강점에 대한 신념,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강점의 의미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한 자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Rogers, 1961)을 경험하였다. 아울러, 강점 인식을 통해 자기 이해가 확장된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와 분리한 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심지은, 윤호균, 2008). 이는 참여자들에게 내담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내담자 스스로 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런 태도는 참여자 자신에게도 적용되어 상담자로서의 전문성과 개인적인 성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된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은 ‘이해 단계’, ‘재구성 단계’, ‘명료화 단계’, ‘통합 단계’, ‘통합 유지 단계’의 경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현상을 계기로 강점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확장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개인의 경험이 새롭게 수정되고 해석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과 의미 체계가 변화되어간다는 Mezirow(2000)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자들이 경험한 상담자로서의 위기감은 상담자 발달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상담자는 정체기를 지나 혼란기를 겪는 과정에서 강점에 대한 기존의 관점이나 태도가 무너지게 되고 혼란과 동요를 경험하게 된다(Loganbill, Hardy, & Delworth, 1982). 또한, 상담자는 상담에서 어려움과 곤경을 만난 후에 환멸을 체험하는데,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자원과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과 부족함을 마주하도록 유도하여 상담 과정에서 내면의 것에 집중하고 유연해지도록 만든다(Ronnestad & Skovholt, 2003).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이해 단계에서 이분법적인 개념의 강점이 확장되어 새롭게 이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상담자로서의 위기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점의 통합적 의미를 내면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준거 체계가 강점 인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위기감은 강점을 인식하는 상담자 관점의 발달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연구와 임상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여러 심리 상태에 집중하면서 이를 완화하고 치유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다 보니, 강점을 부각시키는 노력은 크게 부족했던 것이 실상이다(채정호, 2007).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한 위기감은 강점과 관련된 교육의 부재로 인한 결과물로 보여지

는 바, 이는 내담자 강점 인식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자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의 ‘재구성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강점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주어진 맥락에서 가장 적절한 강점의 개념과 개입 방법을 구성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Skovholt & Ronnestad, 1992). 이는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다면화되고 질적으로 우수해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권혜경, 이희경, 2013). 성장이 “경험의 끊임없는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Dewey, 1916, P. 122), 내담자 강점에 대한 이해는 참여자들의 상담 경험이 증가하면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와 증상에 대한 관점 또한 확장된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문제와 강점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는 강점들도 인식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내담자 강점을 재구성하는 양상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자신의 강점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내담자 강점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상담자는 상담 안에서 스스로가 치료적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Neufeldt, Karno, & Nelson, 1996)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의 개인적 가치와 편향이 그들의 평가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Lopez & Snyder, 2003), 강점에 대한 관점의 알아차림이 참여자들의 전문성에 자원이 되고 개인적인 성숙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명료화 단계’에서 ‘통합 단계’를 거치면서, 강점 개입 시 적절한 시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입 적절성 그 자체가 내담자를 이해하고 있다는 상담자의 공감적 측면을 내포한다는 점에서(장재홍, 1998), 내담자 강점 개입의 적절한 시점을 고려하는 것은 강점에 대한 통찰의 전제 조건이며, 더 높은 자각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상담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통합 유지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강점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과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들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단계에서 그 이상의 단계로 전문성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연습과 지원이 중요하다(Dreyfus & Dreyfus., 1986; Feldman, 1995)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참여자들에 의하면, 상담자는 개인의 문제와 강점을 인식하면서 욕구를 보살피는 전문가이다. 내담자 강점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한 개인을 이해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욕구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상담자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강점 인식 발달 과정은 순환적 양상을 띠며 전인적인 발달로 이어져 나갔다. 강점 인식 발달 과정은 상담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개인적인 측면으로도 영향력이 확장되는데, 구체적으로 상담 과정, 참여자들의 전문성, 그리고 개인적인 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상담 과정은 관계 형성과 소통에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상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상담 성과는 내담자 강점이 기능할 때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상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내담자의 특성과 자원(Lambert, 1992; Orlinsky, Ronnestad, & Willutzki, 2004)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강점을 인식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찰과 노력 또한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그들은 내담자의 내적인 힘을 신뢰하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더 많은 강점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개인적인 삶의 경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담자가 학문적인 연구 경험, 상담 실습 훈련,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경험까지 포함하여 균형과 통합을 이룰 때 발달하게 된다는 주장(Skovholt & Starkey, 2008)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 발달에 있어서 상담자의 인간적 성숙과 전문성 발달이라는 통합적 발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참여자들이 강점의 개념을 확장하고 통합하는 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준 요인들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영향을 준 요인은 ‘수퍼바이저 경험’, ‘상담 과정에서의 통찰’, ‘내적인 힘의 알아차림’, ‘강점 인식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의 성장 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인 성장을 위해 자기 분석과 배움의 기회를 유지하면서 강점에 대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퍼바이저 경험은 강점 인식 발달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상담자의 전문성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성찰(Skovholt & Ronnestad, 1995)이며, 수퍼바이저가 되어 간다는 것은 전문적 발달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Shechter, 1990)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내담자, 내담자-수퍼바이저 관계, 작업적 맥락 등 다양한 수퍼비전 상황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내담자 강점이 다양하게 인식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이 무엇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 내담자 강점을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는 Hawkins와 Shohet(2012)의 수퍼비전의 7가지 초점 모델(the seven-eyed model of supervision)의 특성과 유사하다. 이 모델은 수퍼바이저의 초점에 따라 수퍼바이저의 역할과 수퍼비전의 성격이 달라짐을 보여주면서, 상담자의 고차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강점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개입과 관련된 통찰을 획득함으로써 상담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성장은 다시 수퍼바이저로서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수퍼바이저 경험은 상담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강점에 대한 관점을 체계적으로 확장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수퍼바이저 경험에서 참여자들은 내담자 강점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 그것을 언어화하는데 집중하였고, 이 과정이 강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언어화는 사고의 경직성을 줄여주고 인지적으로 사고를 활성화시켜 기존 지식에 새로운 것을 통합하면서 더 나은 개념적 이해를 갖도록 표상을 변화시켜 준다(Karmiloff-Smith, 1992). 이처럼, 언어화 과정은 강점에 대한 관점을 선명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내담자 강점을 정교화하는 개입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가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점을 정교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과 필요

성을 시사한다. 수퍼비전이 상담과는 차별적인 고유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전문 활동(Bernard & Goodyear, 2009)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강점 인식과 관련된 수퍼비전과 수퍼바이저의 전문 활동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을 촉진시키는 수퍼비전이야말로 상담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강점 중심의 상담 개입과 이론적 모델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Quinlan, Swain, & Vella-Brodrick, 2012)을 감안하면, 내담자 강점 인식을 위한 상담자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수퍼비전 활동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한 영향 요인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경험, 즉 결정적 사건으로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인 힘을 발견하고, 나아가 내담자의 내적인 힘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는 통찰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고통 속에서 성장의 기회와 또 다른 시작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고, 내적인 힘을 가진 내담자의 조력자로서 상담자 역할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험들은 상담전문가로서의 성장에 자원이 되어, 인간의 자기실현 경향성을 믿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최적의 치료적 자기(optimal therapeutic self)’(Skovholt & Ronnestad, 1992)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정리하면,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에게 있어서 개인적 자기 발달이 전문가로 성장해 가는 것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개인적 자기란 신체적·정서적·지적·영적인 면에서 개인으로서의 자기와 개인적인 관계 속의 자기를 의미한다(Skovholt & Rommestad, 1992). 그러므로, 상담자 수련 과정 중에 강점 인식을 촉진할 수 있는 개인적 자기 발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양질의 체계적인 훈련과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영향을 준 요인들은 내담자 강점 인식과 관련된 상담자 교육의 방법과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강조된 내담자 강점을 경험적 사례로 규명하였다.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전문가적 발달 경험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탐색하여 그 경험의 본질과 통합적인 발달 과정을 제시했다는 점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숙련상담자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자체의 발달 과정을 통해 강점 인식 발달의 흐름을 파악하고, 상담 회기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심층적으로 고찰한 데에 독창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 상담자의 자기 강점 인식이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역량과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점을 인식하는 관점의 발달이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상담자의 통합적인 관점을 촉진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발달 과정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넷째,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

달과 상담자 전문성 발달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이다. 특히 초심상담자들에게는 내담자 강점 인식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에서 숙련상담자들의 특성 및 발달 과정에 대한 탐색은 상담자 교육과 훈련의 목표 및 방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15명의 숙련상담자들이 진술한 회고적 자료 (retrospective data)를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참여자들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각 발달 단계에 속한 상담자들의 자료를 통해 강점 인식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강점에 대한 이해와 내담자 강점 인식의 필요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자들이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이었던 것은 강점에 대한 관점의 확장과 통합적 의미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담 수련 과정에서 내담자 강점에 대한 이해와 신념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내담자 강점을 인식하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의 개발과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이론적 오리엔테이션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론적 배경의 상담자들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내담자 강점 인식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 고문정 (2016). 상담자의 공감나누기 체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7(2), 1-23.
- 고윤희, 박성현 (2014).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 805-839.
- 권경인, 지희수 (2010). 집단상담: 집단상담 숙련전문가의 발달 특성 분석. *상담학연구*, 11, 1075-1098.
- 권혜경, 이희경 (2013).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 397-424.
- 김계현, 문수정 (2000).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 김대원, 김영주, 이지원, 장재현 (2013). 초심상담수련생과 내담자가 겪는 조기종결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157-186.
- 김혜미, 오인수 (2016). 숙련상담자의 좌절경험 및 극복과정의 구조 분석. *한국상담학회*, 17(5), 159-180.
- 박승민 (2005). 온라인게임 과다사용 청소년의 게임행동 조절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과정. 서울: 학지사.
- 박철옥 (2014). 복합외상경험자의 상담을 통한 자기의 회복과정: 근거 이론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경림, 김미영 (2003). 근거이론 연구 방법론.

- 서울: 현문사.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8).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출판부. 293-296.
- 심지은, 윤호균 (2008). 상담자 교육에서의 마음챙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 307-328.
- 이명우, 박정민, 이문희, 임영선 (2005). 사례개념화 교육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경험적 지식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77-296.
- 이소연, 최바울, 이정선, 서영석 (2014). 슈퍼바이저가 경험한 상담수련생의 전문적 역량 의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 245-270.
- 이수림, 조성호 (2009). 상담자 발달과 지혜에 관한 연구: 상담자 발달수준에 따른 상담자의 지혜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69-91.
- 이현아, 이수원 (1997). 내담자의 저항에 대한 숙련상담자와 초보상담자의 언어반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157-180.
- 장유진 (2016). 청소년 개인상담에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의 활용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과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 123-156.
- 장재홍 (1998). 해석기법에 대한 이해: 정신역동적 입장에서. *인간이해*, 19, 25-49.
- 조윤진, 이은진, 유성경 (2014). 상담심리치료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부정적인 경험의 변화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 41-877.
- 채정호 (2007). 긍정심리학과 행복학의 합일을 통한 정신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스트레스학회*, 15, 177-186.
- Aspy, D. N., & Aspy, C. B. (1998). Toward effective advocacy for humanistic values. *The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37, 85-95.
- Bernard, A. B. (1991). Empirical implications of the convergence hypothesis. Working Paper.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Stanford University.
- Bernard, J. M., & Goodyear, R. (2009).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4th ed.). Boston: Allyn & Bacon.
- Black, B. (2001). The road to recovery. *Gallup Management Journal*, 1, 10-12.
- Brick, M., & Mills, J. (2015). 근거이론의 실천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2nd ed.)]. (공은숙, 이정덕 공역). 서울: 정담미디어. (원전은 2009년에 출판).
- Chazin, R., Kaplan, S., & Terio, S. (2000).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brief treatment with culturally diverse clients. *Crisis Intervention and Time-Limited Treatment*, 6, 41-50.
- Chi, M. T. H., Glaser, R., & Farr, M. J. (1988). *The nature of expertise*. Hillsdale, NJ: Erlbaum.
- Conyne, R. (2004). *Preventive counseling: Helping people to become empowered in systems and settings* (2nd ed.). New York, NY: Brunner-Routledge.
- Corbin, J. M., & Strauss, A. L. (2009). 근거이론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신경림, 김미영, 김정선, 신수진, 강지숙 공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2008년에 출판)
- Crotty, M. (2001). 현상학적 연구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신경림, 공병혜 공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1995년에 출판).

- Dewey, J. (1916). Method in science teaching. *Science Education*, 1, 3-9.
- Dreyfus, H. L., & Dreyfus, S. E. (1986). Five steps from novice to expert. In H. L. Dreyfus, S. E. Dreyfus & T. Athanasiou (Eds.), *Mind over machine: The power of human intuition and expertise in the era of the computer* (pp. 16-51). New York, NY: Free Press.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Feldman, D. H. (1995). Learning and development in nonuniversal theory. *Human Development*, 38, 315-321.
- Freud, S. (1912). The dynamics of transference. *S. E.* 12.
- Gall, M. D., Gall, J. P., & Borg, W. R. (2003). *Educational research: An introduction* (7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Gelso, C. J., & Woodhouse, S. (2003). Toward a positive psychotherapy: Focus on human strength. In B. W. Walsh (Ed.), *Counseling psychology and optimal human functioning* (pp. 171-19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elso, C. J., Nutt Williams E., & Fretz, B. (2014).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ovindji, R., & Linley, P. A. (2007). Strengths use, self-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s for strengths coaching and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2, 143-153.
- Guba, E. G., & Lincoln, Y. E.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Harter, S. (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In W. Damon &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553-617).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Hawkins, P., & Shohet, R. (2012). *Supervision in the helping professions*. McGraw-Hill Education (UK).
- Hillerbrand, E. (1989).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expert and novices: Implications for group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 293-296.
- Hurtes, K. (2001). Measuring resiliency in youth: The resiliency attitudes and skills profile.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66, 89-98.
- Jennings, L., & Skovholt, T. M. (1999). The cognitive, emo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master therapis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11.
- Kaczmarek, P. (2005). Counseling psychology and strength-based counseling: A promise yet to fully materializ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 90-95.
- Karmiloff-Smith, A. (1992). *Beyond Modularit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cognitive science*, London: The MIT Press.
- Lambert, M. J. (1992). Psychotherapy outcome research: Implications for integrative and eclectic therapists. In J. C. Norcross & m. R. Coldfried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pp. 94-129). New York, NY. US:

- Basic Book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 3-42.
- Lopez, S. J., & Snyder, C. R. (2003).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uborsky, L., McLellan, T. A., Woody, G. E., O'Brien, C. P., & Auerbach, A. (1985). Therapist success and its determinants. *Archive of General Psychiatry*, 42, 602-611.
- Martin, J., Slemon, A. G., Hibert, B., Hallberg, E. T., & Cummings, A. L. (1989). Conceptualizations of novice and experienced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395-400.
- Mezirow, J. (2000). Learning to Think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rapy. In J. Mezirow, & Associates (Eds.),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rapy in Progress* (pp. 3-33).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Neufeldt, S. A., Karno, M. P., & Nelson, M. L. (1996). A qualitative study of experts' conceptualizations of supervisee reflectiv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3-9.
- Ohlsen, M. M. (1997). Humanistic teaching. *The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35, 130-134.
- Orlinsky, D. E., Ronnestad, M. H., & Willutzki, U. (2004). Fifty years of psychotherapy process-outcome research: Continuity and change. In M. J. Lambert (Ed.), *Bergin and Garfiel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5th ed., pp. 307-392). New York, NY: Wiley.
- Patton, M. W.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2nd ed.). Newbury Park, CA: Sage.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classification and handbook*. New York and Washington, DC: Oxford University Press an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Quinlan, D., Swain, N., & Vella-Brodrick, D. A. (2012). Character strengths interventions: Building on what we know for improved outcom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 1145-1163.
- Rettew, J. G., & Lopez, S. J. (2008). Discovering your strengths. In S. J. Lopez (Ed.), *Positive psychology: Exploring the best in people* (Vol. 1 pp. 1-21). Westport, CT: Praeger.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Ronnestad, M. H., & Skovholt, T. M. (2003). The journey of the counselor and therapist: Research findings and perspectives on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 5-44.
- Sartre, J. P. (2013). 존재와 무 [L'etre et le neant]. (정소성 역). 서울: 동서문화사. (원전은 1943년에 출판).
- Scheel, M. J., Davis, C. K., & Henderson, J. D. (2013). Therapist use of client strengths: A qualitative study of positive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1, 392-427.
- Scheel, M. J., Seaman, S., Roach, K., Mullin, T.,

- & Blackwell-Mahoney, K. (1999). Client implementation of therapist recommendations: Predicted by client perception of fit, difficulty of implementation, and therapist influ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08-316.
- Schon, D. A. (1987). *Educating the reflective practitioner: Toward a new design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profession*. New York, NY: Basic Books.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NY: Free Press.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eligman, M. E. P.,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 410-421.
- Shechter, R. A. (1990). Becoming a supervisor: A phase in professional development. *Psychoanalysis and Psychotherapy, 8*, 23-28.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505-515.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5).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 Skovholt, T., & Starkey, M. (2008, August). Epistemology legs of the practitioner's stool: Research, practice, personal life. In C. D. Belar (Chair), *Examining the mechanism for Lifelong Learning in Professional Psychology*.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Boston, MA, USA.
- Spengler, P. M., & Strohmer, D. C. (1994). Clinical judgment biases: The moderating roles of counselor cognitive complexity counselor client pre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8-17.
- Strauss, A. L., & Corbin, J. M. (1996). 근거이론의 이해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김수지, 신경림 역). 서울: 한울 아카데미. (원전은 1990년 출판).
- Strauss, A. L.,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Strauss, A. L., & Corbin, J. M. (2003). 근거이론의 단계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2nd ed.)*].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1998년 출판).
- Ward, C. C., & House, R. M. (1998). Counseling supervision: A reflective model.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1), 23-33.
- Wright, B. A., & Lopez, S. J. (2002). Widening the diagnostic focus: A case for including human strengths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26-44).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원고접수일 : 2021. 07. 01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9. 06
 게재결정일 : 2021. 10. 12

Study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Counselors' Perceptions of Client' Strengths

Hye-Kyung Kwon

Dongguk University

Hee-Kyung L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study sought to understand how counselors develop their perspectives on client' strengths. Data from 15 experienced counselors were, analyzed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e following are the main findings. First, a shift in counselors' frames of reference for assessing client' strength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expertise. Second, the perceptions of client' strengths developed in the following order: 'understanding', 're-structuring', 'clarifying', 'integrating', and 'maintaining integration'. In this process, the integration of the counselor'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personal maturity were identified as the key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strength perception. The counselor's process of developing client strength awareness was explained as 'internalizing the integrated meaning of client' strengths by broadening perspectives, and helping clients to perceive their own strength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re suggested.

Key words : Strengths, Strengths Perception, Developmental Process of Strength Perception, Grounded Theory Method